2022년 12월 독일 프라이부르크 선교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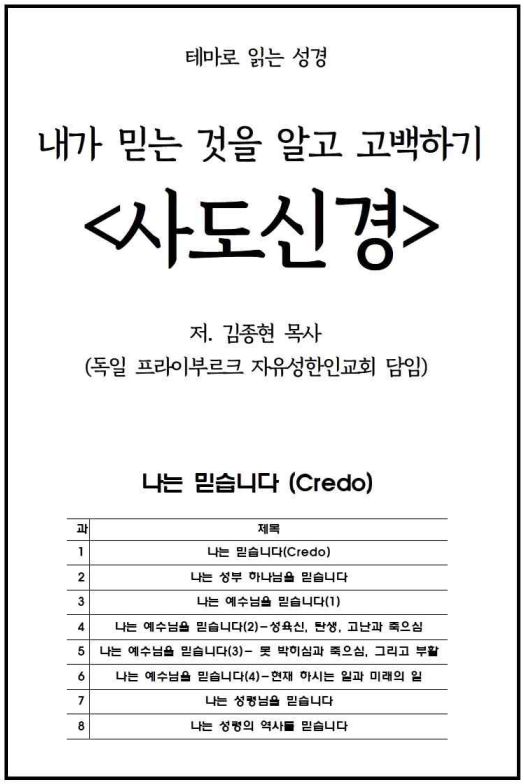
- 김종현 설공주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역, MK(선교사자녀)사역, 유럽방송사역, 독일현지인협력사역, 성경공부사역

"나는 믿습니다"

#1.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고백할까요?

마틴 루터는 신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위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세례와 성찬>, 이 다섯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대교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간략하게 간추린 <소요리문답>을 통해 아이들이 날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살도록 교육했습니다.


테마로 읽는 성경

내가 믿는 것을 알고 고백하기

<사도신경>

저. 김종현 목사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유성한인교회 담임)

나는 믿습니다 (Credo)

과	제목
1	나는 믿습니다(Credo)
2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3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1)
4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2)-성육신, 탄생, 고난과 죽으심
5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3)- 못 박히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6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4)-현재 하시는 일과 미래의 일
7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8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역량도 안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너무 신학적이거나, 방대하거나, 아니면 너무 간략해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도신경의 중심 의미를 알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을 정리한다는 것은 한 권의 얇은 조직신학책을 내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12주 정도를 계획했다가 결국 정리하다 보니 8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한 권으로 정리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신자들이 꼭 정리해 두어야 하고, 알고 고백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에, 십계명학교, 그리고 작년부터 올 초까지 산상수훈과 함께 주기도문을 정리하고, 이제 사도신경을 정리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저의 목회와 사역에 아주 중요한 뼈대가 갖춰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야 좀 어떻게 목회를 해야할지 알 것 같다고 할까요?** 제가 벌써 목회를 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심정입니다. 배울수록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네요. 이 편지와 함께 전체 묶은 파일을 보냅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길 빕니다.

#2. MK(선교사 자녀학교)사역 시작!!

코로나기간 동안 외부인은 출입금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숙사에 먹을 것을 전달만 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드디어 이번 학기에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먹을 것도 함께 먹고,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3~40명의 한국과 관련된 선교사 자녀들이 이곳에서 기숙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학교가 또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가서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신실한 그루터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신다는 것**을!

#3. 성탄 노방전도 - 노방전도는 옛날 방식이 아니예요!

이번 성탄에는 근처 지역에서 사역하는 터키공동체와 함께 노방전도를 하였습니다. 터키에서 추방되어 온 선교사님들이 독일에 있는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힘을 실어드리고 연합하여 성탄의 주인은 쇼핑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였지만, 옛날 열정이 살아나는 거 있죠? 청소년 때 거리에 나가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하며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도 전도를 많이 나갔었지만, 저도 참 오랜만에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터키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우크라이나어, 한국어 등 여러 나라의 가사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는 이들은 전도지를 가지고 주변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그건 옛날 방식이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옛날 방식은 없더라구요. 단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뿐. **우리가 너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편한 것, 합리적인 것,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을 수 있는 법에 익숙해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습니다.

#4. "비로소 그리스도인" 세례교인이 된다는 것!

올해부터 공동체가 달라진 점은 세례를 받지 않은 교인이 2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정이 되면 받겠다, 한국에 가면 결혼할 친구랑 같이 받겠다, 마음에 확신이 부족하다, 아직 그 정도 믿음은 아닌 것 같다 등등 참 여러 가지 못받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주간 정말 기도하며 정성껏 세례와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후 진심으로 초청을 했지만..... 이미 받기로 했던 세례교육까지 끝난 한 청년에게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내심 기적을 바라고 기대했었거든요... "자, 오늘은 세례받고자 하면 바로 제가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오늘 결단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 흑흑... 그러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세례가 무엇인지, 왜 세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보다 확신을 가지고 받지 않을까 하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5. 김종현, 설공주 선교사 기도제목

- **변함없는 선교사로서의 기도제목 1번** : 선교사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게 하소서.
- **프라이부르크자유성한인교회** :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2023년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 **유럽새벽기도방송사역** : 유럽 곳곳에 흩어져있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을 섬기는 방송이 되게 하소서. 현재 890여회 진행중입니다.
- **성경공부사역** : 새해부터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 신약성경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혜와 성실과 가르침의 은사와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꼭 들어야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각처에서 불러주소서.
- **MK(칸던 선교사자녀학교)사역** : 부적응하는 학생이 없이, 선교지에 있는 부모선교사들의 기쁨이 되는 아이들 되게 하소서
- **병원사역** :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 중환자들과 호스피스병동을 위해 찬양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가족기도제목** : 설공주선교사 학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독일어공부와 학업을 하는데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김종현*설공주선교사 후원안내 : KEB하나은행 147-1823876-6
독일 Deutsche Bank - IBAN: DE67 6807 0024 0093 9181 00 BIC : DEUTDEDBFRE